

# 가족공유 가사노동 시간 및 영향요인 연구

이 기 영(서울대 교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가 다르게 인식된다. 특히 가족들이 행동영역과 관계없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 형성이나 활동의 수행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009년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함께 한 사람에 대한 문항이 추가됨으로써 영역별 활동에 대해 함께 한 사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동영역 중 가사노동에 초점을 두어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실태, 가족공유가사노동 여부에 따른 집단 별 특성, 가족공유 가사노동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혼자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살핌을 받는 대상에 따라 가족과의 공유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2009년에 실시한 제3차 국민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 농가 및 단독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20-59세의 기혼자 9,179명(남성 4,267명, 여성 4,912명)의 질문지 및 시간일지이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평일과 일요일의 생활시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이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혼자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2배 정도 많은데 반해 남성은 혼자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비슷하게 나타나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할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평일에는 미취학자녀와의 가족공유시간이 가장 길고 그 외 가족, 배우자의 순서인데 반해 일요일에는 배우자와의 가족공유시간이 가장 길었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사노동의 가족공유시간이 긴 것은 가정관리시간에서의 가족공유의 증가, 배우자와의 가족공유시간의 증가,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셋째,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은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나 평균시간에 있어서 남성보다 2배 이상 길었으며 가족보살피기의 행위자비율은 2.8배, 행위자 평균시간은 2.4배로 가정관리보다 남녀 간의 격차가 컸다. 또한 남녀 간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가정관리에 있어서는 행위자 비율의 차이에, 가족보살피기에서는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의 차이에 기인하였다. 일요일은 평일보다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했는데 이는 가정관리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에서의 증가, 남성의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넷째,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별 집단 간 특성을 보면 연령이 젊고, 전문대나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여성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개인소득이 없으며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으며 생활시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다섯째,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일평균소득, 성역할태도 미취학자녀 존재 여부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가족공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